

傷寒論 少陰病篇에 나타나는 三急下證에 관한 研究

I. 緒論	91
1. 少陰病 得之二三日에 口燥咽乾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92
2. 少陰病에 自利清水하되 色純靑하고 心下必痛하며 口乾燥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94
3. 少陰病 六七日에 腹脹하고 不大便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95
4. 大承氣湯의 使用目的	97
III. 結論	98
IV. 參考文獻	98

KYOBO
교보문고

傷寒論 少陰病篇에 나타나는 三急下證에 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申榮日

1. 緒論

『傷寒論』은 外感病의 發病部位와 病情에 따라 治法 治方을 달리하여 초기 對症療法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규율에 따른 질병치료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의 독특한 의학이론 체계인 辨證論治를 발전시키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研究는 明代에 이르러 溫病學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傷寒과 溫病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傷寒과 溫病의 논쟁에서 傷寒學派는 傷寒과 溫病은 一類이며 傷寒論의 理法方藥만 잘 알면 모든 外感病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溫病을 전문으로 研究하였던 學者들은 傷寒과 溫病이 전혀 다른 것임을 주장하고 초기 치료방법인 解表法에서 傷寒은 辛溫解表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溫病은 辛涼解表 새로운 治法을 열어 놓았다. 湯本求真은 『皇漢醫學·傳染病論』에서 傷寒을 현재 韓醫學에서 溫病이라 볼 수 있는 장티푸스에 대비하여 설명하여 1) 傷寒과 溫病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병이 아니라

1) 장티푸스는 에베르트와 가프키 두 사람이 발견한 장티푸스균이 小腸粘膜에 寄生 繁殖함으로써 해서 일어난 것으로 菌 자체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비하여 菌이 생산하는 毒素의 害毒이 오히려 크다. 이 毒素에 대하여 가장 敏感하게 반응하는 곳은 延髓 속의 溫生産中樞인데, 毒素의 刺戟을 받으면 이 中樞는 즉시 흥분하여 그 결과로 體溫이上昇

한다. 그러므로 溫調節中樞는 職責上 默過할 수 없어 調節하려 하지만 그 방법은 異常體溫을 밖으로 發散하는 수밖에 없다. 또 發散하는 데는 絶對한 面積을 保有하면서 無數한 汗腺을 가지고 있는 皮膚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中樞는 毒素가 滿載한 血液을 間斷없이 皮膚面으로 輸送함으로써 體溫放散에 노력한다. 그러나 自然의 妙機에도 程度가 있는 것이어서 無限大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니, 汗으로 排出하지 못한 毒素는 筋骨에 스며들어 頭項強痛 四肢痠痛을 일으키고, 毒素를 배출하고자 하나 배출이 되지 않은 영향으로 惡寒發熱을 일으키며, 아울러 피부 부위 혈관에 血液이 증가되었으므로 浮脈이 나타나게 된다. --- 그러나 이 發汗法에 의하여 全愈되는 일은 드물다. 發表로 인해서 表證이 緩解하여 일시적으로 爽快함을 느끼게 되는 데 불과한 것이며, 오래지 않아 體溫이 점차 상승하고, 口苦 惡心 嘔吐 食慾不振 口渴 舌苔 등의 消化器症狀, 咳嗽 胸痛 등의 呼吸器症狀를 發하며, 脈은 浮性이 덜해져서 弦細하게 된다. 이것을 漢方에서, '表證이 풀리지 않고 少陽으로 轉入한다.'는 것이니 이 症狀이 곧 少陽證이다. 이처럼 病狀이 變化하는 까닭은 溫調節中樞가 疲勞困憊하여 종전과 같이 多量의 血液을 體表로 輸送할 수 없게 된 必至의 運命으로서 血液이 體內部에 充溢하게 되기 때문이다. 方劑를 썼는데도 病勢가 猛極하여 制御할 수 없을 때는 脈이 沈 遲 實 등으로 변하고, 意識의 朦朧 헛소리 潮熱 腹滿 便秘나 下利(惡臭가 코를 찌르는 듯한 毒便) 食慾不振 舌黑苔 등의 症狀를 나타낸다. 이것은 漢方에서 '少陽證이 풀리지 않고 陽明으로 轉屬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끊임 없는 毒素의 刺戟과 持續된 高熱로 인하여 溫調節機가 極도로 攪亂되어 그 機能이 完全히 喪失되어 放散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毒素는 發散될 길이 없어 體內 깊숙이 消化管에 集積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下劑를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漢方에서 이것을 下劑의 適應症으로 보는 것은 至當한 見解로서 毒素集積의 程度와 患者의 體質의 差에 따라 調胃承氣湯 桃核承氣湯 小承氣湯 大承氣湯을 選用할 때, 消化管內에 集積된 毒素는 細菌과 함께 완전히 掃蕩되고 苦寒은 金방 霧散雲消하는 것이다.

고 판단하는 등 前代의 研究를 綜合하여 볼 때 溫病과 傷寒은 같은 熱性 傳染病의 범주에 속하고 단지 그 治法에 있어서 서로 다른 方法을 摸索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一般 熱盛傳染病에 대한 認識이나 理解의 차이일 따름이니 溫病과 傷寒의 本質의인 차이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溫病學說은 실제적으로 一般 熱盛傳染病의 傳變過程과 治療法에 대한 傷寒論보다 좀더 發展된 一種의 學說일 따름이다.²⁾

『傷寒論』에서는 질병의 轉變規律을 三陰三陽으로 나누고 각각의 轉變狀況에 따라 汗吐下和 溫法 등의 治法을 개발하여 여기에 알맞는 方劑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治法은 太陽病에서 汗法을, 陽明病에서는 下法을 少陽病에서는 和法을 三陰病에서는 溫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範疇와는 달리 少陰病篇에 大承氣湯으로 下法을 쓰는 것 3條文이 있는데, 注家들은 이를 少陰病 三急下證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에서 少陰病 三急下證에 대한 諸家의 설을 정리하고 溫病學的인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論

『傷寒論·少陰病并脈證治』에 보이는 大承氣湯證은 '少陰病 得之二三日 口燥咽乾者 急下之 宜大承氣湯.(320條)³⁾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 312

3) 條文의 일련번호는 張啓基 外, 『傷寒論手冊』,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3. 에 의거 정한 것임.

痛 口乾燥者 急下之 宜大承氣湯.(321條)' '少陰病 六七日 腹脹 不大便者 急下之 宜大承氣湯.(322條)' 가 있는데, 각각의 條文에 대하여 먼저 諸家의 註釋에 의거하여 내용별로 비교 고찰하고 이 證이 溫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少陰病 得之二三日에 口燥咽乾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이 條文의 口燥咽乾 대하여 :

成无己를 중심으로 하여 方有執 尤怡 등은 "傷寒이 발생한지 五六일에 邪가 少陰에 傳하면 口燥咽乾하면서 渴證이 생기니 邪氣가 점점 깊어가기 때문이다. 少陰病이 二三日되어 邪氣가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口燥咽乾하는 것은 邪熱이 이미 깊이 들어가 腎水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니 급히 大承氣湯으로 下之하여 腎氣를 회복시켜야 한다."⁴⁾ 라고 하였는데, 이는 口燥咽乾이 少陰病에서 나타나는 것에 의미를 두어 裏熱이 심하여 腎의 陰氣를 枯渴시켜 발생한다는 陰陽論의 面으로 본 것이다.

이와는 달리 柯琴·錢潢·舒沼·山田正珍·陸淵雷· 등은 "陽明病에서 下法을 쓰는 證 가운데 少陰病과 비슷한 것이 있으니…… 口燥咽乾證은 바로 急下할 證은 아니나 반드시 可下之脈證과 腹候가 있을 것이니 口燥咽乾證이 같이 나타나면 津液이 곧 枯渴할 것이니 마땅히 急下存陰해야 한다. 以下二條도 마찬가지다. 또한 少陰病篇에 大承氣湯으로 急下하는 三條는 모두 陽明病이다."⁵⁾ 라고

4) 傷寒傳經五六일에 邪傳少陰하면 則口燥咽乾而渴하니 爲邪漸深也일새라. 尙少陰病得二三日하야 邪氣未深入之時에 便作口燥咽乾者는 是邪熱已甚하야 腎水乾也니 急與大承氣湯下之하야 以全腎也다.

5) 陽明下證에 有酷以少陰者하니 讀者遇此에 常迷惑失措나

하여 胃實 實熱 燥屎나 宿食이 겸하여 있는 陽明熱證으로 土府인 胃가 實하여 水臟인 腎을 乾하여 발생한 증상이므로 少陰病이라 명명하였지만 病의 根本은 胃實 實熱 燥屎가 있는 胃家實證으로 보아야 한다는 五行論의인 면으로 보고 陽明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楊宏仁은 “邪氣가 少陰病에 침범한지 二三日만에 口燥咽乾하는 것은 원래 환자가 胃火素盛하고 腎水素虧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大承氣湯으로 急히 胃火를 瀉하여 腎水를 구해야 하니 만약 치료시기를 늦추면 腎水가 枯渴할 것이니 陰氣가 枯渴하면 비록 下法으로 치료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⁶⁾라고 하여 口燥咽乾證이 胃火가 원래 實하고 腎水가 원래 虛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素質의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 條文에 대한 여러 注家의 의견이 紛紛한데 우선 口燥咽乾證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 病證에 대해 張璐 柯琴 錢潢 山田正珍 陸淵雷 등은 여러 상황을 들어 陽明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陽明病의 病理特徵을 살펴보면 少陰病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陽明病의 發生機轉은 太陽病을 太過하게 發汗시켜 津液을 손상시켜 발생하거나 完全하게 發汗시키지 못하여 邪熱이 안으로 들어가 발생하거나 發汗

法을 쓰지 않고 誤治하여 裏熱이 亢盛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陽明病의 證候는 身熱 汗出 口舌乾燥 脈洪大 등을 나타내는 陽明經證과 潮熱 譫語 腹脹疼痛 大便秘結 등을 나타내는 陽明府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열형을 나타내지만 後天之本인 胃의 津液만을 枯渴시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腎의 元陰을 消燼시키는 일은 없다. 일반적으로 咽喉의 證狀은 少陰病이나 厥陰病에서 元陰不足으로 인하여 虛火가 上炎한데서 발생한 것이 많으므로⁷⁾ 이 條文의 口燥咽乾은 少陰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少陰病은 外邪가 侵入하여 三陽經을 거친 다음에 轉變되는 관계로 少陰病證이 나타나기까지는 5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만에 나타났으므로 이는 風寒邪가 강한 경우와 溫疫邪의 경우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熱證이 심하여 口燥咽乾의 증상이 나타나고 津液을 傷하는 것이 심하므로 後者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條文은 陽明病의 胃家實證의 하나라고는 볼 수 없으며, 溫病에서 溫邪가 침습하여 腎의 津液을 枯渴시켜 더 이상 陰精이 상승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證으로 보아야 하므로 『傷寒論·少陰病篇』에 配屬시켰다고 볼 수 있다.

今參以腹診하면 則確然易知라. 口燥咽乾一證은 未可據以急下나 必別有可下之脈證腹候하고 兼見口燥咽乾하면 則津液將竭할새 當急下存陰耳이니 以下二條도 倣此라. 又少陰篇에 用大承氣湯急下者 三條는 其病皆是陽明이요 蓋亦熱論家之舊文이니 故曰 稱少陰耳라. 三條舊注에 多以爲少陰復轉陽明은 蓋卽所謂中陰瀉府之病이니 然既傳陽明하면 則遲稱陽明이 可矣라. 若以其自少陰轉來를 而仍稱少陰하면 則太陽少陽之轉入陽明者를 仍稱太陽少陽이 可乎아 其爲熱論家之文을 可知라.

6) 邪至少陰二三日에 卽口燥咽乾者는 必其人胃火素盛하고 腎水素虧할새 當以大承氣湯으로 急瀉胃火하야 以救腎水나 若復遲延時日하면 腎水枯渴하야 其陰必亡하야 雖下라도 無及矣라.

7)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而復吐利(290)

少陰病 下利 咽痛 胸滿 心煩者 豬膚湯主之(317)
 少陰病 二三日 咽痛者 可與甘草湯 不差者 與桔梗湯(318)
 少陰病 咽中上生瘡 不能語言 聲不出者 苦酒湯主之(319)
 少陰病 咽中痛 半夏散及湯主之(320)
 少陰病 下利清穀 裡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 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324)
 少陰病 四逆 其人或咳 或悸 或小便不利 或腹中痛 或泄利下重者 四逆散主之(325)
 傷寒先厥後發熱 下利必自止 而反汗出 咽中痛者 其喉爲痺 發熱無汗而利必自止 若不止 必便膿血者 其喉不痺(341)

2. 少陰病에 自利清水하되 色純靑하고 心下必痛하며 口乾燥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이 條文에 대해 成無己·方有執·程知·楊宏仁 등은 “少陰病에서 自利清水하는 것은 糟粕이 없이 下利하는 것이요 色純靑은 汚水를 下利하는 것이니 下無糟粕이 바로 汚水이다. 이는 少陰實熱에 속하니 心下必痛하고 口燥咽乾하는 것을 보면 少陰病의 急下證이 틀림없으니 大承氣湯으로 急下하여야 한다.”⁸⁾라고 하여 모두 이에 대한 원인을 모두 “少陰實熱”로 보고 있다.

또한 周揚俊·秦之楨·沈目南·余霖·沈明宗 등은 “熱邪가 少陰에 傳해져 往往 渣滓가 없는 清水를 自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旁流之水로 인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色을 띠지 않고 純靑色인 것으로 또한 木邪가 土를 침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心下가 아프고 口乾燥하는 것으로 燥屎가 攻脾하여 津液이 모두 말라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마땅히 急下하여 陰津을 구해야 한다. 이는 少陰의 邪氣가 陽明에 轉入하여 생긴 陽明腑證이다.”⁹⁾라고 하여 이의 원인을 “少陰轉入陽明腑證”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張璐는 “少陰證에서 自利하는 것이 가장

8) 少陰病에 自利清水는 謂下利無糟粕也요 色純靑은 謂所下者皆汚水也니 下無糟粕이 純是汚水라 此는 屬少陰實熱일새 所以心下必痛하고 口燥咽乾은 其爲少陰急下之證이 無疑矣 故曰 當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9) 熱邪傳之少陰하야 往往自利至清水而無渣滓로 明系旁流之水を 可知며 色純靑而無他色相間으로 又系木邪乘土를 可知라. 況痛在心下하고 口且乾燥로 其燥屎攻脾而津液盡燄을 又可知矣니 故當急下하야 以救陰津이라. 此는 少陰轉入陽明腑證也라.

많은 것은 虛寒하면 自利清穀하고 虛熱하면 下利膿血하기 때문이니 대부분 溫補法으로 치료한다. 傳經陽邪가 內結하면 純靑水를 自利하며 溫熱病이면 自利煩渴하니 清熱瀉下하여야 한다.¹⁰⁾”라고 하여 이의 원인을 傳經陽邪가 內結하거나 溫熱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唐宗海는 “火가 木의 도움을 받으면 靑色이 나타나나 어떠한 이유로 木色의 下利를 하는 지 모르며 또한 心下必痛을 木剋土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잘 못된 것이다. 이미 土가 木의 克을 받았는데 어찌 大承氣湯을 다시 써서 土를 攻伐할 수 있으리요. 대개 純靑色은 木色이니 膽汁의 本色이 나타나는 것이다. 洋醫들은 ‘肝氣가 有餘하면 膽汁이 많이 생겨 嘔苦不食하고 靑色 大便을 본다.’하니 이것이 色純靑의 뜻이요 洋醫들은 大黃·水銀粉으로 이를 치료하니 此論과 합당하다. 心下必痛하는 것은 胸部的 膈膜을 말하는 것이니 膈은 肝에 연결되고 膽에 통할새 膽火가 盛하면 肝으로부터 담즙이 많이 나와 膈中으로 들어가 心下에 이르러 膈中에서 운행하는 水를 막으므로 이 水가 胃中으로 들어가 下泄하니 이것이 바로 清水며 그 色이 純靑하게되는 까닭이다. 대개 膈膜은 行水之道요 水는 胃를 따라 膈으로 들어가니 膽汁이 膈을 따라 胃로 들어가면 心下의 膈을 橫格하니 心下必痛이 생긴다. 膽汁이 胃로 들어가 水가 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膽汁을 下泄하면 純靑色의 清水를 下利하게 된다. 水가 胃中을 따라 下泄하여 膈膜에 水가 없으면 化氣升津할 수 없는 까닭에 口乾燥하니 水와 津은 腎이 主하는 것이므로 이證은 少陰腎經에 속한다.”¹¹⁾라고 하여 이의 原因

10) 少陰之證에 自利者最多는 虛寒則自利清穀하고 虛熱則下利膿血하니 故多用溫補요 傳經陽邪內結하면 則自利純靑水하고 溫熱病이면 則自利煩渴하니 並宣下奪清熱이라

11) 火得木助하면 現木之靑色이니 然이나 未知何故要泄出木之色하고 又心下必痛으로 解爲土受木克은 尤非也라. 既土

을 독특하게 “肝膽實熱”로 보고 있는데 少陰病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口乾燥”가 腎이 主하는 水와 津液의 부족으로 나타나므로 少陰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病因을 ‘少陰實熱’, ‘少陰轉歸陽明’, ‘肝膽實熱’ 등 어떤 것으로 보던 간에 중요한 점은 이 條文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傳經熱邪가 少陰에 들어간 것’, ‘伏邪가 內發한 것’이 아닌 新感溫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傷寒論·少陰病篇』에서는 傳經熱邪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證에 따라 豬膚湯 苦酒湯 桃花湯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伏邪內發인 경우 黃連阿膠湯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러한 점이 이 條文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條文에 대한 注家中 唐宗海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며, 이에 해당하는 현대 의학적인 病名으로는 中毒性痢疾, 急性出血性腸炎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의학에서는 濕熱疫의 범주에 속한다.

3. 少陰病 六七日에 腹脹하고 不大便者는 急下之니 宜大承氣湯이라.

受木克하니 豈可再用大承氣야 以攻其土哉리요. 蓋純靑은 爲木之色者니 見現出膽汁之本色也라. 西洋醫言肝氣有餘則 則生膽汁太多하야 嘔苦不食하고 大便靑色이라하니 此其色純靑之義也요 西醫用大黃水銀粉治之하니 與此論正合이라. 其心下必痛者는 是指胸前之膈膜 言也니 膈은 連于肝而通于膽系할새 膽火盛하면 汁多從肝系而注入膈中하야 至心下하야 將膈中所行之水阻遏하야 使返還入胃中하야 從而泄하니 是爲清水요 其色純靑也라. 蓋膈膜은 是行水之道요 水는 要從胃而入膈하니 膽之大汁이 要從膈而入胃하고 逆拒于心下之膈하니 故心下必痛이라. 膽汁瀉入胃하야 而水不得入于膈하야 反隨膽汁下泄하면 爲下利清水하고 其色純靑也라. 水既從胃中下泄하야 而膈膜中反無水하면 不能化氣升津 故로 口乾燥也며 水津者는 腎所主 故로 此證은 歸于少陰腎經이라.

이 條文에 대해 成无己·周揚俊·沈目南을 비롯한 여러 注家들은 “이는 少陰風熱이 陽明에 轉入하여 燥實이 된 것이다. 腎은 胃의 關門이니 關門이 熱閉하면 腎邪가 陽明으로 돌아 들어가 脾胃腎 三臟이 壅塞無通하므로 腹脹하면서 不大便하게 되며 胃津과 腎水가 장차 끊어질려고 하므로 마땅히 大承氣湯으로 急下하여 胃腎의 將絕之陰을 구해야 할 것이다. 대개 少陰病에서 腹脹 不大便是 邪氣가 胃에 傳해진 것이니 少陰陽明이라 말할 수 있고, 陽明濕熱이 腎으로 下流하여 目中不了了하고 睛不和하는 것은 陽明少陰이라 말할 수 있으니 五臟六腑가 모두 서로 傳乘生克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診斷하면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다.¹²⁾”라고 하여 이의 원인을 少陰의 熱邪가 陽明府證으로 轉歸된 것으로 보고, 腹脹 不大便에 대해서는 脾胃腎이 壅塞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으며 熱邪로 인하여 胃津과 腎水가 枯渴되므로 急下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李蔭嵐은 “少陰病 六七日은 邪氣가 化寒化熱하는 시기이다. 腹痛下利는 少陰의 邪가 化寒하여 안으로 太陰의 裏에 逆했기 때문이지만 지금의 腹脹하고 不大便是 少陰의 邪가 化熱하여 안으로 陽明의 裏에 逆했기 때문이니 火盛土燥의 뜻으로는 같지만 나타나는 病證은 같지 않다. 陽明病에서 發汗不解하고 腹滿痛한 것을 急下하는 것은 陽熱內結을 치료하기 위함이고 少陰病에서 腹脹不大便을 急下하는 것은 陰熱內結을 치료하기 위함이니 陽邪 陰邪를 막론하고 中焦에 內結하면 모

12) 此는 少陰風熱이 轉入陽明燥實也라. 腎爲胃關이니 關門熱閉하면 腎邪還轉陽明하야 而脾胃腎三臟이 壅塞無通 故로 腹脹而不大便이요 但胃津腎水가 將已告絶 故로 宜大承氣急下하야 而救胃腎將絶之陰也라. 蓋少陰病에 腹脹不大便是 乃邪傳於胃니 謂之少陰陽明이요 而陽明濕熱下流腎中하야 有目中不了了하고 睛不和者는 謂之陽明少陰이니 但五臟六腑가 皆有互相傳乘生克之義라. 倣此察病하면 則機變無窮矣라.

두 大承氣湯으로 急下한다.¹³⁾”라고 하여 病의 原因에 대해 陰邪 陽邪를 막론하고 邪氣가 內結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모두 急下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楊宏仁은 “少陰病 六七日에 腹脹不大便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陽氣가 素盛하고 胃에 宿食이 있기 때문이다. 邪氣가 이미 少陰으로 들어가고 다시 陽明으로 轉屬하여 胃實證이 發한 것이니 大承氣湯으로 急下하여야 한다.¹⁴⁾”라고 하여 素質적으로 陽氣가 盛하고 본래 宿食이 있으므로 少陰病이지만 腹脹 不大便證을 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黃元御는 “脾가 병들면 氣陷하고 氣陷하면 臍以下脹하며, 胃가 병들면 逆하고 逆하면 臍以上脹한다. 太陰病의 腹脹은 濕이 盛하여 便利하며 陽明病의 腹脹은 燥가 盛하여 便堅하니 腹脹不大便證은 陽明의 燥가 盛하여 脾陰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燥土가 水를 克하여 水涸하고 脾精枯槁한데 戊己合邪가 殘陰에 영향을 주면 水가 더욱 마르게 되니 急下해야 한다.¹⁵⁾”라고 하여 비록 少陰病이지만 이는 陽明燥熱이 脾陰을 소모시키는 증이므로 大承氣湯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상기한 注家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면 이 條文에서 말하는 腹脹不大便是 원래 陽明臍證에 해당

하는 것이지만 少陰病이라고 한 점을 볼 때 이는 별개의 독립적인 條文이 아니라 320條의 口燥咽乾證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아야 한다.

上記 三條에서 少陰病이라고 한 것에 관해 湯本求真은 熱이 없고 欲寐等證이 있기 때문으로 였고 汪琥는 口燥咽乾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柯琴은 “熱淫於內 腎水枯涸 因轉屬陽明 胃火上炎 故 口燥咽乾 急下之 火歸於坎水 津液自升矣.¹⁶⁾”라고 하여 熱로 因하여 腎水가 枯涸하기 때문으로 여기고 모두 이 條文들이 모두 少陰病이 轉屬陽明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程國彭은 醫學心悟에서 口燥, 咽乾而渴, 下利清水를 가리켜 少陰經의 傳經熱證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傳經의 日數를 따져 본다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病을 얻은 지 2, 3日 만에 證狀이 暴急하게 나타나는 것은 傷寒傳經의 熱證과는 같지 않으므로 이는 少陰經에서 溫病의 邪가 發하여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張璐는 著書인 『傷寒續論』에서 “伏氣之發于少陰 其勢最急 與傷寒傳經熱證不同 得病才二三日即口燥咽乾 延至五六日始下 必枯槁難爲矣 故宜急下以救腎水之燔灼也.¹⁷⁾”고 하여 이 條文이 溫病과 관련된 條文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上記 證狀은 病邪의 性質이 最速한 溫熱之邪임이 분명하나 322條文에서는 六七日만에 腹脹不大便의 證狀이 나타나므로 이것에 한하여 傳經熱邪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傳經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病邪의 性質이 溫熱性이라는 것과, 病人의 腎陰이 虛한 상태가 兼해 있다는 것이 證狀의 가장 核心的인 要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張璐는 “少陰之證 自利者最多 虛寒則下利清穀 虛熱則下利膿血 故多用溫補 傳經陽邪內結 則自利純清水 溫熱病 則自利煩渴 并宜下

13) 少陰病六七日은 爲邪之化寒化熱時也다. 若腹痛下利는 是少陰之邪化寒하야 而內逆于太陰之裏也로대 今에 腹脹하고 大便不行은 是少陰之邪化熱하야 而內逆于陽明之裏也니 與火盛土燥之義로 同이나 惟見證不同也다. 陽明病에 發汗不解하고 腹滿痛者를 急下之는 是陽熱內結也요 少陰病에 腹脹不大便을 急下之는 是陰熱內結也니 無論陽邪與陰邪之內結하고 均必結于中焦 土之位也니 故均宜下之以大承氣湯也다.

14) 少陰病六七日에 腹脹不大便者는 蓋因其人이 陽氣素盛하고 胃有宿食故也다. 所以傳邪已入少陰하고 復轉屬陽明하야 而成胃實하니 故宜大承氣湯으로 急下之也다.

15) 脾病則陷하고 陷則臍以下脹하며 胃病則逆하고 逆則臍以上脹이라. 太陰之腹脹은 則濕盛而便利하고 陽明之腹脹은 則燥盛而便堅하니 腹脹不大便是 是陽明燥盛而灼脾陰也다. 燥土克水하야 水涸而脾精枯槁한데 戊己合邪가 以臨殘陰하면 水愈不支하니 更當急下다.

16)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出版社, 1978. p.122.

17) 張璐. 『傷寒續論』, 臺北, 自由出版社, 1987. pp.796-797.

奪清熱...¹⁸⁾”라고하여 傳經熱邪와 溫熱病과의 구별 점을 논하고 있으니 자못 참고할만하다고 본다.

또한 이 3條文은 각각의 條文이 독립적인 病證이 아니라 疫邪이 침범하여 濕熱疫이 발생하는 3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320條의 口燥咽乾은 초기 단계로, 321條의 自利清水 色純靑 心下必痛 口乾燥는 그 다음 단계로, 322條의 腹脹 不大便是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4. 大承氣湯의 使用目的

仲景은 『傷寒論·陽明病篇』에서 大承氣湯의 用例은 반드시 痞·滿·燥·實의 네 가지 條件을 具備하고 있어야 비로소 이를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여러 注家들은 少陰病 三急下證에서 大承氣湯을 쓰는 것으로 보아 少陰病이 陽明腑로 轉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錢潢은 “病을 얻은지 二三日만에 바로 口燥咽乾證이 나타나 急下之證으로 된 것은 少陰病의 變證이요 少陰病의 常證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口燥咽乾證은 急下之證이 아니므로 반드시 胃實證과 實熱脈이 있어야 한다. 病證이 비록 少陰에 속하지만 邪氣가 陽明으로 돌아 간 것이므로 所謂 ‘陽明中土는 萬物所歸며 無所不傳이라’하니 胃家實의 證據가 있어야만이 大承氣湯으로 急下할 수 있다. 急下해야 하는 이유는 陰部로 邪氣가 들어가 陽氣가 점점 亡失되고 胃氣가 敗損하여 厥·躁·呃·逆의 證狀으로 발전할까 염려해서이니 變證이 별 때처럼 나타나면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으므로 不得不 급히 下法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다.”¹⁹⁾라

18) 張璐. 前揭書. p 797.

19) 錢潢. 『傷寒溯源集·少陰篇』(陸云平. 『傷寒論古今研

고 하여 大承氣湯의 목적이 胃實證과 胃實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吳又可는 그의 著書인 『溫疫論·注意逐邪勿拘結糞』에서 다음과 같은 조금은 相反된 주장을 하고 있다. “下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지 말라는 설에 거리끼어 마땅히 下해야 하는 症狀을 下하고서도 結糞이 없음을 보고 瀉下시킨 것이 너무 빨랐다고 생각한다면 或 下證이 아닌 것을 下藥을 誤用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본래 承氣湯은 逐邪하기 위해서 設定된 것이지, 전적으로 結糞을 위해 設定된 것이 아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만약에 結糞이 되기를 기다린 다음 瀉下하려고 하면 血液이 熱로 인하여 損傷되어 變證이 연이어 생겨난다. 이는 어린 호랑이를 길러 禍를 자초하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醫者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滯糞이라도 下할 時機를 놓지면 이것이 熏蒸하여 敗漿처럼 極臭를 發하고, 혹은 蓮根을 찢어 놓은 것 같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結硬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다만 穢惡氣가 일단 사라지면 邪毒도 이에 따라 消去되고 脈證도 이에 따라 없어진다. 어찌 結糞만을 기다려서 下法을 遷延시킬 수 있겠는가.”²⁰⁾라고 하여 大承氣湯을 쓰는 目的이 燥屎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邪氣를 瀉下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 볼 때 少陰病 三急下證은 少陰病이 陽明腑證으로 轉移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濕熱疫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究,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4. p 799.에서 再引用) “此條의 得病才二三日에 卽口燥咽乾하여 而成急下之證者는 乃少陰之變이요 非少陰之常也라. 然이나 但口燥咽乾은 未必卽是急下之證이로대 亦必有胃實之證과 實熱之脈이라. 其見證이 雖少陰이나 而有邪氣復歸陽明하니 卽所謂陽明中土는 萬物所歸며 無所不傳하니 爲胃家實之證據라야 方可急下而用大承氣湯也라. 其所以急下者는 恐入陰之證하여 陽氣漸亡하여 胃氣敗損하여 必至厥躁呃逆일새니 變證蜂起하면 則無及矣 故로 不得不急也라.”

20) 吳又可. 『溫疫論』, 北京, 中醫藥出版社, 1995. p 18.

III. 結論

상기의 三急下證은 비록 大承氣湯을 사용하고 있지만 少陰病에 속하는 것은 원래 腎陰이 不足하여 쉽게 邪氣가 侵入하고 재차 熱邪로 인하여 腎의 陰精을 枯渴시키기 때문이다.

少陰病 三急下證은 傳經熱邪에 의한 病證이 아니라 瘟疫邪가 下焦部位에 直中하여 생긴 新感 溫病가운데 濕熱疫의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中毒性 痢疾, 急性 出血性 腸炎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3條文은 각각의 條文이 독립적인 病證이 아니라 疫邪이 침범하여 濕熱疫이 발생하는 3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320條의 口燥咽乾은 초기 단계로, 321條의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는 그 다음 단계로, 322條의 腹脹 不大便是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三急下證에서 大承氣湯의 사용목적은 燥屎를 瀉下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逐邪의 의미로 보아야한다.

IV. 參考文獻

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2. 朴贊國 외. 溫病學. 서울. 成輔社. 1989.
3. 吳又可. 溫疫論. 北京. 中醫藥出版社. 1996.
4. 陸云平 외. 傷寒論古今研究.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4.
5. 李倍生.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6. 張璐. 傷寒續論. 臺北. 自由出版社. 1987.
7. 張正昭. 傷寒論歸真.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8. 程國彭. 醫學心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9. 湯本求真. 皇漢醫學. 서울. 癸丑文化社. 1989.
1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